



작가의 말

달팽이 느림이의 이야기는 실은 저의 이야기이자,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따뜻한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은 느릿느릿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만요.
느림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 멋진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느림이 친구들, 우리 모두 같이 파이팅 해봐요!



달팽이 느림이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8)

발행일 2025. 11.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

글·그림 이지현

지도작가 고진이

[비매품]

* 이 책은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2기의 결과물로
민들레작은도서관 「그림책 창작동아리 우리 곧, 작가」 활동으로 만든 그림책입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전자책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ISBN 979-11-94496-79-3(PDF 전자책)

ISBN 979-11-94496-71-7(세트)



전자책 읽기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8

달팽이 느림이

글·그림 이지현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안녕~

초록 풀숲에 아주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달팽이의 이름은 '느림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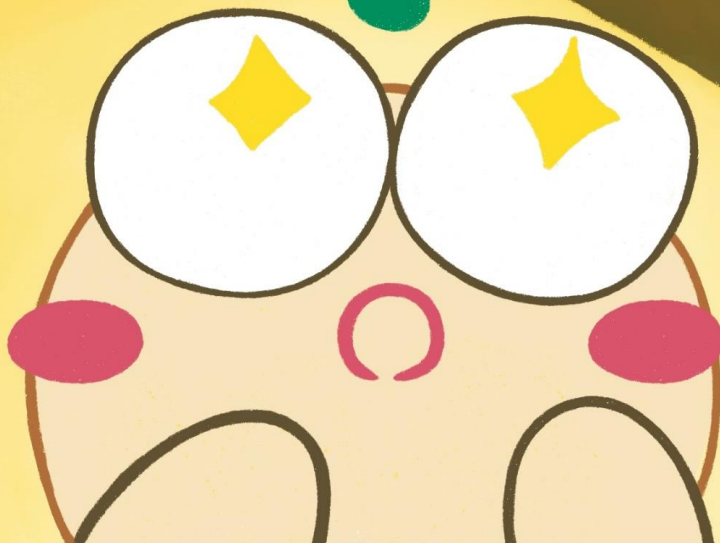


어느 날 친구 꿀벌이가 말했어요.

“느림아, 저기 제일 높은 나무의 꼭대기에서 보는 풍경이 엄청 멋있어!
너도 보러 가봐~”



나무 꼭대기에서 멋진 풍경을 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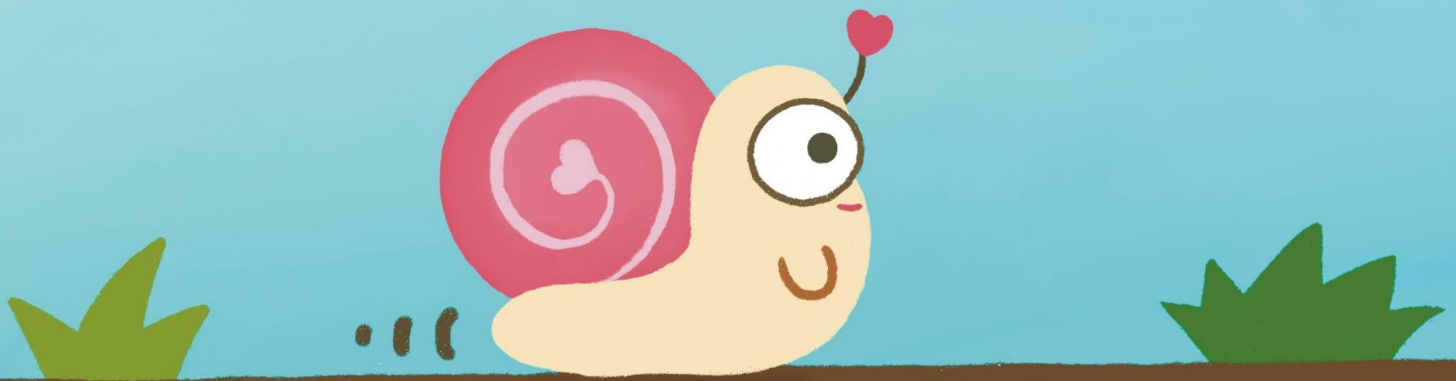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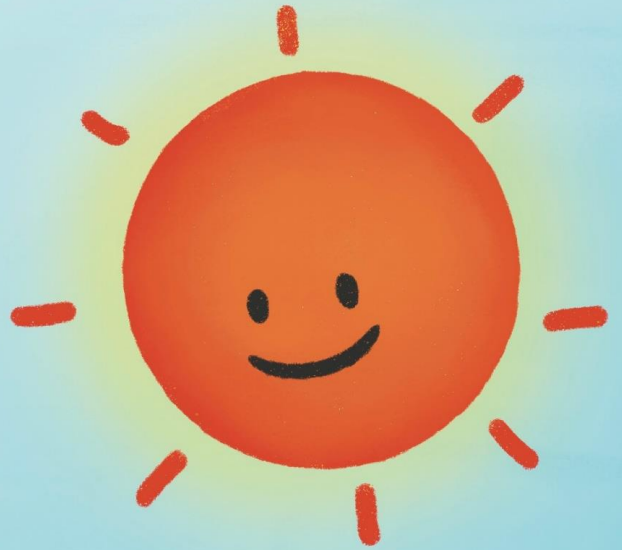


“저 멋진 나무의 꼭대기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멋지겠지?”
느림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멀리 보이는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나무를 향해 출발한
느림이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긴 시간을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나무 아래에 도착했어요.

도... 도착!!
아이고...
힘들다...;;



느림이는 작고 느린 발로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느림이는 천천히
올라갔어요.





하지만 느림이가
올라가고 싶은 나무는
정말 높았어요.



정말 무척 높았어요.

한참을 올랐는데 겨우 나무뿌리 위에 올라왔어요.
“휴우... 너무 느려... 언제 꼭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오! 달팽이!

느림이는 나무를 올라가다가
잠시 멈춰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커다란 새가 쏘살같이 내려왔어요!



새는 그림이를 부리로 콕 잡아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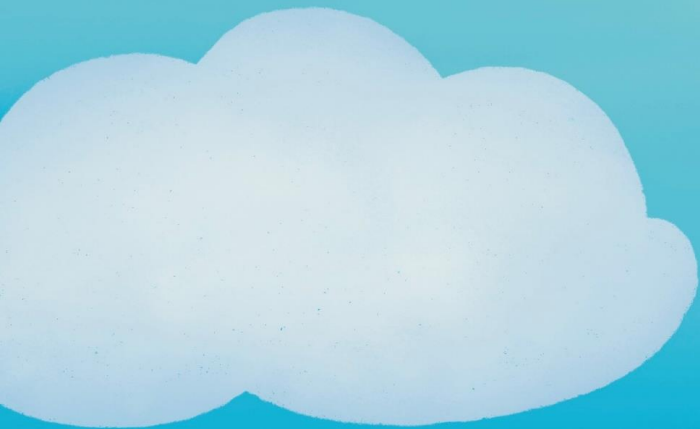


안돼~!!
내 나무~!

느림이는 나무에서 멀어져 갔어요...



새에게 물려서 날아가던 중에
꿀벌이를 만났어요.
“느림이는 내 친구야! 어서 내려줘!”






꿀벌이가 용감하게
새를 공격했어요!

꿀벌이의 벌침에
쏘인 새가 “아야!!” 하며
느림이를 떨어뜨렸어요!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snail with a pink, spiral shell and a light-colored body. The snail's eyes are closed with 'X' marks, and its mouth is a simple line, giving it a sad or unconscious expression. It is lying on its side on a vibrant green lawn. The background features several large, stylized trees with brown trunks and green foliage. In the foreground and midground, there are various green bushes and flowers, including yellow and white blossoms. The overall scene is bright and cheerful, contrasting with the snail's state.

느림이는 풀밭에 떨어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린 느낌이는 많이 속상했어요.
열심히 올라가던 나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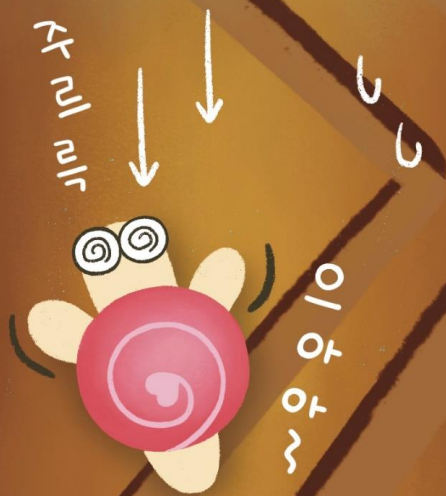


“느림아,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친구 꿀벌이가 내려와 물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꿀벌아. 난 괜찮아...
그런데 내 나무가 안 보여.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보고 싶었는데...”
느림이가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느림아!
이곳에도 굉장히 멋진 나무가 있어!
여기를 봐~”
“응?”
꿀벌이가 가리킨 곳에도 멋진 나무가 있었어요.

느림이는 다시 나무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시 나무에 오르는 시간도 무척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느림이는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친구 꿀벌이의 응원을 받으면서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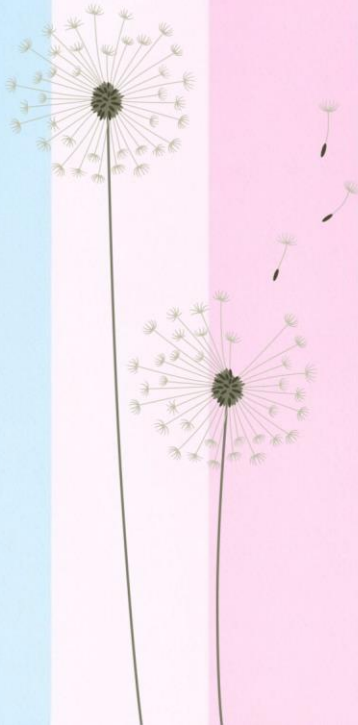


드디어 느림이는
나무의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나무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주아주 멋졌어요.
느림이는 환하게 웃으며 멋진 풍경을 바라봤답니다.









인천은 읽^{read} 걷^{walk} 쓰^{write} 한다 <



안전은 **함께** 쓰입니다 <



전자책 읽기